

#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천적 고찰 - 지역사회 기반 공공 문화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강미나\*

## [요약]

본 연구는 빅터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실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구조와 실천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프로그램은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창조적 가치, 체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기반 공공 문화공간에서 총 12회기로 실행되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창조적 표현을 통해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감각적 몰입과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적 회복과 의미 재구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로고테라피의 철학이 예술적 실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예술치유가 개인의 내면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적 정서 회복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로고테라피의 실존적 가치가 예술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비교적 연구를 통해, 로고테라피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학문적 근거와 실천적 확장 가능성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로고테라피, 예술치유, 의미 중심 상담, 실존적 성장, 창조적 가치, 체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주제분류: 사회과학>심리과학

\*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상담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논문접수 : 2025년 10월 24일, 논문심사 : 2025년 11월 25일, 게재승인 : 2025년 11월 30일

Copyright © 2025. The Korea Society of Logotherapy.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심리적 공허와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관계의 단절, 팬데믹 이후 심화된 고립감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빅터 프랭클(Viktor E. Frankl, 1969)이 제시한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인간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의미 상실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며, 이때 삶은 방향성을 잃고 무력감이 심화된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는 이러한 실존적 공허에 대한 해답으로,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프랭클은 인간이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를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인간관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이 아닌,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며, 이는 예술치유가 지향하는 자기표현과 선택의 자유, 자아의 초월적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로고테라피는 증상의 완화를 넘어 의미 회복을 통한 실존적 성장을 지향하며, 인간의 정신적·영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철학은 예술치유의 본질적 속성인 창조성·상징화·표현의 자유와 깊이 연결된다(이종인, 2019).

예술치유(Art Therapy)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창작 행위를 통해 상징화함으로써 자아 통찰과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통합적 심리치료이다. 창작 과정 속에서 개인은 몰입과 자기표현을 경험하며, 감정·기억·가치의 내면적 재구성성을 통해 자기 이해를 확장한다. 이는 로고테라피가 강조하는 ‘의미 발견의 과정’을 시각적·상징적 형태로 구현하는 체험적 장(場)이라 할 수 있다(송태운, 김갑숙, 2024).

최근 국내에서는 로고테라피 철학을 예술치료적 맥락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지화(2019)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삶의 의미와 만족도가 향상됨을 보고하였으며, 그림책 매체를 활용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구승미, 2024)은 경력단절 여성의 우울 감소와 자기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로고테라피 프로그램(조지연, 2023)은 실존적 상실과 돌봄 부담 속에서 ‘의미의 재발견’을 돕는 정서적 회복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로고테라피의 철학이 예술적 매체와 결합될 때, 인간의 실존적 성장을 구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예술치유 활동은 개인의 내면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정서적 연결 회복에도 기여한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례연구. 꽃 피는 마을이야기 프로그램(임선애, 김운태, 2021)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였으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채성만, 2020)는 공공예술과 치유 활동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함을 실증하였다. 이처럼 예술은 개인의 심리적 의미 탐색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치유적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로고테라피에 기초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실천 과정을 질적 서술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유 현장에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로고테라피의 가치가 예술치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예술치유가 개인의 의미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정서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고테라피의 실존 철학을 예술치유 프로그램 설계에 통합하고, 그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로고테라피의 핵심 가치(창조적, 체험적, 태도적 가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설계와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둘째,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 탐색과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는가?

셋째, 로고테라피 기반 예술치유의 실천은 개인의 실존적 회복과 공동체의 관계적 치유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로고테라피 철학과 심리치료적 가치

로고테라피(Logotherapy)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이 제시한 실존주의 심리치료 이론으로,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프랭클은 인간의 근본적 동기가 쾌락(프로이트)이나 권력(아들러)이 아니라 의미의 의지(will to meaning)라고 보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절망 속에서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프랭클, 1969).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가치인 창조적 가치, 체험

적 가치, 태도적 가치로 정리된다. 첫째, 창조적 가치는 일, 예술, 봉사 등 행위를 통해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 속에서 표현할 때 실존의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 둘째, 체험적 가치는 사랑, 자연, 문화, 예술과 같은 체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영역으로, 감정과 직관의 깊은 경험이 인간 존재의 내면을 확장시킨다. 셋째, 태도적 가치는 고통이나 상실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가치들은 인간이 외적 조건에 종속되지 않고, 내적 자유와 책임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랭클의 인간관은 인간을 단순한 생리적·심리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지닌 영적·초월적 존재로 본다. 그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며,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주체성과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실존철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즉,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회복력(resilience)과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로고테라피는 단순한 인지적 치료가 아닌 의미 중심 심리치료(meaning-centered psychotherapy)의 성격을 갖는다. 프랭클의 접근은 인간의 내면을 ‘의미를 탐색하는 정신적 차원(noölogical dimension)’으로 보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재해석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다. 이 과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자각하고,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실존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박상미, 2020).

로고테라피의 철학은 또한 예술치유와의 근본적 연관성을 가진다. 창조적 가치는 예술적 행위 속에서 구체화되며, 체험적 가치는 예술적 감수성과 몰입을 통해 실현된다. 태도적 가치는 창작 과정에서의 실패·한계·불안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태도적 전환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예술 활동은 로고테라피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가치가 심리적 경험으로 구현되는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다(진숙희, 2021). 결국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정신적·영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치료철학이다. 이는 예술치유가 지향하는 창조적 자기표현과 내적 성장, 삶의 의미 재구성과 같은 목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따라서 로고테라피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설계의 근본적인 가치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개인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실존적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치유의 철학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 2. 예술치유의 개념과 실존적 접근

예술치유(Art Therapy)는 예술적 표현과 심리치료의 원리를 통합하여,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무의식적 내용을 시각적 형태로 드러내는 심리적 치료 과정이다. 인간은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의 정서와 경험을 외화(外化)하며, 이를 다시 인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아 이해와 심리적 통합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지·정서·신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내면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

예술치유의 기본 전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표현적 존재’라는 점이다. 즉, 인간은 언어 이전의 감정과 기억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 행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자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 창작 과정에서의 몰입(flow)과 상징화(symbolization)는 개인이 무의식적 감정이나 기억을 안전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게 하는 치료적 작용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치유는 단순한 표현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실존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예술 행위를 ‘존재의 표현’이자 ‘의미 회복의 행위’로 본다. 인간은 불안·상실·고통과 같은 실존적 조건 속에서도 창조적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다. 예술치유는 이러한 실존적 인식 위에서, 인간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즉, 예술은 고통을 단순히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게 전환시키는 통합적 치유의 언어가 된다(송태윤, 김갑숙, 2023).

특히 실존적 접근의 예술치유는 ‘결핍의 치유’보다 ‘존재의 확장’에 초점을 둔다. 참여자는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전에는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과 가능성을 발견한다. 예술적 표현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외부화 함으로써, 존재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 이는 로고테라피의 관점에서 말하는 창조적 가치와 체험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도지화, 2020).

또한 예술치유는 관계적 차원에서도 실존적 의미를 가진다. 작품은 치료자와 내담자, 참여자 상호 간의 ‘대화적 매개체’로 기능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확장되고 공동체적 의미가 회복된다. 이는 인간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실존철학적 관점과도 일치한다.

결국 예술치유는 단순한 정서적 해소나 심리적 안정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실존적 탐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논의할 로고테라피와 통합적 접근을 마련하며, 예술이 인간의 실존적 회복과 의미 발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 3. 로고테라피와 예술적 치유의 통합적 의의

로고테라피와 예술치유는 모두 인간의 ‘의미 발견’을 중심으로 하는 실존적 치료 접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로고테라피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탐색하도록 돕는 심리 치료라면, 예술치유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 형태로 드러내게 하는 창조적 실천이다. 즉, 로고테라피가 내면의 의미를 ‘사유하는 과정’이라면, 예술치유는 그것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랭클은 인간이 창조적 가치, 체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예술치유의 핵심 구성요소와 긴밀히 연결된다. 창조적 가치는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으로 나타나며, 체험적 가치는 예술을 매개로 한 감정·감각의 몰입을 통해 강화된다. 또한 태도적 가치는 예술적 시도 속에서 실패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새로운 통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가치는 예술치유의 치료적 경험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구현된다.

예술치유는 로고테라피가 제시한 의미 중심 치료의 방향을 시각적·상징적·체험적 차원에서 확장한다. 내담자는 언어적 한계를 넘어 재료와 형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외화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여한 의미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해소를 넘어,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는 실존적 변화로 이어진다. 즉, 예술적 창작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구성하고 의미를 재창조하는 실천적 행위로서, 로고테라피의 핵심 정신을 구체적으로 체화하는 과정이다.

두 접근의 통합적 의의는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의 실현에 있다. 프랭클이 강조한 자기초월은 인간이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계를 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술치유는 개인의 내면을 타자와 공유 가능한 상징으로 변환시켜, 관계적 회복과 공동체적 의미 창조로 확장시킨다. 이는 개인적 치유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선애, 김운태, 2021).

결과적으로 로고테라피와 예술치유의 통합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예술적 창조를 통해 그것을 삶의 가치로 전환하는 실존적 회복의 통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공공예술 현장에서의 치유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예술을 통한 의미 발견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회복

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 4. 선행연구 고찰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고 자기초월을 실현하도록 돕는 실존주의적 심리치료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을 상담, 예술치유, 공동체 회복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로고테라피 기반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 로고테라피와 예술치유의 융합 연구, 공동체 및 공공예술치유 사례 연구의 세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째, 로고테라피 기반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는 다양한 집단에서 삶의 의미 회복을 촉진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로고테라피 집단 상담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삶의 목적 수준과 자기 통제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김지영, 2018),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의미 상실 경험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정혜린, 2022). 또한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이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 수용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이주연, 2021). 이와 같은 연구들은 로고테라피가 다양한 생애 주기에서 심리적 적응과 내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로고테라피와 예술치유의 융합 연구는 감정 표현의 비언어적 특성을 활용하여 의미 탐색의 과정을 심리적·체험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도지화(2019)는 의미치료 기반 노인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삶의 만족과 존재감이 향상됨을 보고하였으며, 고유선(2022)은 로고테라피를 응용한 예술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자아 통합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 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진, 2023). 이러한 결과는 로고테라피의 핵심 가치(창조적·체험적·태도적 가치)가 예술적 표현과 결합될 때, 의미 탐색이 내면화된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공공 예술 및 공동체 예술치유 연구에서는 로고테라피의 실존적 가치가 개인의 치유를 넘어 공동체적 회복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용수(2022)는 사회 혁신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이 주민 간

신뢰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고, 박영주(2021)의 연구에서도 문화 예술 교육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회복의 매개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 연구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한 주민 참여가 공동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장영호, 2022).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로고테라피가 예술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적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예술치유 현장에서 로고테라피의 실존적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고테라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의미 탐색의 예술적 구현과 공동체적 확장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Ⅲ. 프로그램 구성 및 연구방법

#### 1.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는 k시 소재 도시 재생센터 내에서 진행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이 공간은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 문화형 치유공간이다. 최근 도시 재생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심리적 웰빙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7). 이러한 변화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사회·문화적 재생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수현, 2013).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로고테라피(Logotherapy)의 실존주의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여, 예술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내면 회복과 공동체의 정서적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시 재생센터라는 사회적 장(場) 안에서, 예술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 과정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로고테라피의 철학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도지화,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탐색의 구조를 예술치유 과정에 적용하여, 참여자가 창작과 상징화를 통해 삶의 가치와 관계의 의미를 재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자기 이해-관계 확장-의미 재발견의 3단계 흐름을 따른다. 1-4회기에서는 감정 인식과 자기 표현을 중심으로, 5-8회기에서는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 의미를 탐색하며, 9-12회기에서는 예술적 상징을 통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일반적 단계를 준용하였으며(동화진, 2022), 예술적 몰입을 통한 자기 성찰과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을 동시에 촉진한다. 특히 각 회기별 활동에는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가 반영되도록 하여, 예술적 행위를 통해 의미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작용하도록 구성하였다(동화진, 2021). 공간적 환경 또한 치유의 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센터의 교육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재료 접근성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공간 설계는 사회혁신디자인 프로세스의 참여형 접근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김갑숙, 2018), 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회복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진행된 공공 문화공간의 구조적·지역적 특성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개방형 치유·문화 복합공간’으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예술·문화 활동을 경험하는 생활 기반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러한 환경은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기반 집단만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예술치유의 실존적·정서적 경험을 더욱 깊게 하였다.

특히 이 공공문화공간의 특수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프로그램 효과에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 첫째, 지역성(locality)에 기반한 접근성이다. 공간이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외부 상담 서비스’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정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하며 안정감을 느꼈다. 이러한 지역성은 로고테라피가 강조하는 관계적 의미(meaning through connection) 회복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공간의 치유적 구조와 물리적 환경 구성이다. 개방형 테이블 배치, 충분한 동선과 채광, 다양한 재료의 즉각적인 접근성을 갖춘 열린 조형 환경은 참여자들이 감각적 경험과 예술적 몰입을 자연스럽게 누리도록 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로고테라피의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

째, 동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참여자 집단의 공동체성이다. 30~60대 성인 여성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서로 접점이 있는 ‘잠재적 공동체 구성원’이었기에, 프로그램 과정에서 상호 공감·정서 교류·지지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는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경험 재해석과 관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로고테라피의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를 실천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공공문화공간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아니라 치유적 환경(therapeutic milieu)과 지역 커뮤니티의 정서 기반을 동시에 갖춘 실존적 체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공간·관계·지역성이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예술치유가 공공문화 기반에서 더욱 높은 실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의 맥락 안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실존적 예술치유 모델’로 기능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적 회복이 공동체적 치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로, 예술이 단순한 표현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를 재생산하는 치유적 행위임을 드러낸다.

## 2. 회기별 목표 및 활동

본 연구에서 설계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실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로고테라피의 핵심 가치인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를 예술 활동 과정에 단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총 12회기로 운영되었다. 각 회기는 참여자의 자기 이해 → 의미 탐색 → 정서 표현 → 관계 확장의 흐름을 따라 설계되었으며, 개별 창작 활동과 집단 나눔을 통해 예술적 체험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의 <표 1>은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주요 활동 내용 및 로고테라피적 가치 반영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회기별 목표 및 활동

회기	주제	활동 내용	회기목표	로고테라피 가치
1회기	마음을 담은 상자	나의 마음상자를 만들어 보기	내면의 감정을 탐색한다	체험적 가치 (자기 감정 경험을 통한 의미 인식)

로고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천적 고찰

2회기	감정을 상징하는 동물	감정카드를 보며 현재의 감정을 인식한 후, 감정을 상징하는 동물 가면 만들기	긍정, 부정감정을 표현하며 감정해소를 느낀다	태도적 가치 (감정에 대한 수용과 태도 변화)
3회기	향기 꽃바구니	좋아하는 향과 색을 선택하여 꽃바구니 만들기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한다	체험적 가치 (감각을 통한 정서 안정)
4회기	나의 집	수수깡으로 입체모형의 나의 집 만들기	가족관계 시각화와 관계 속 자신 이해한다	창조적 가치 (관계 재구성의 창조적 표현)
5회기	색모래 달팽이	나의 감정을 담은 색을 혼합한 달팽이 꾸미기	색을 통한 자기표현과 감정 탐색을 경험한다	체험적 가치 (색채 경험을 통한 자기이해)
6회기	나의 손 접시	나의 손바닥을 본뜬 점토 접시 만들기	자신의 존재를 신체감각으로 확인하고 자기경계를 인식한다	창조적 가치 (자기 존재의 구체적 접근)
7회기	감정 추상화	음악을 들은 후, 감정그림 그리기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심리적 해소를 경험한다	체험적 가치 (예술적 몰입을 통한 의미 체험)
8회기	두 개의 얼굴	내가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를 각각 표현하기	자기 인식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내면의 조화를 경험한다	태도적 가치 (자기 수용과 통합의 태도)
9회기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삶에서 감사한 경험을 떠올려보며 내가 주인공인 오르골 만들기	자신의 삶 속 의미 재발견과 긍정적 태도를 강화한다	태도적 가치 (삶의 의미에 대한 태도 재구성)
10회기	행복한 자화상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며 자화상 그리기	긍정정서 강화 및 자기수용을 확장한다	창조적 가치 (긍정적 자기 재창조)
11회기	만다라의 숲	자유로운 색과 패턴으로 만다라를 그리기	내면의 평정과 몰입경험을 통해 정서적 균형을 찾는다	체험적 가치 (몰입과 명상적 체험을 통한 안정)
12회기	마음향수 만들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향기를 조합한 후 향수 만들기	향기로 정서를 표현하고, 회기 전체를 통합한다	태도적 가치 (자기 감정의 수용과 의미화)

본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 장면은 [그림 1] ~ [그림 3]과 같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예술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였으며, 점차 창조적 표현에서 정서적 수용, 관계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의미 탐색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사진은 프로그램의 도입, 창작, 마무리 단계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로고테라피의 창조적·체험적·태도적 가치가 예술활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만다라의 숲  
-체험적 가치



[그림 2] 내 삶의 주인공은  
나 - 태도적 가치



[그림 3] 행복한 자화상  
- 창조적 가치

### 3. 실행과정 및 의의

본 프로그램은 2023년 k시 소재의 공공 문화공간에서 12회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지역 내 성인 여성 12명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당 120분씩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설계자이자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활동 전 과정은 참여자 동의하에 기록되었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작품 사진이 수집되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예술활동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라 인식하며 표현에 주저함을 보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안내에 따라 점차 자신만의 색채와 형태를 탐색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기 회기에서는 점토, 아크릴 물감, 핸디코트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내면의 감정과 관계 경험을 시각화하였고, 후기 회기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 과정은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이 제시한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가치가 예술 활동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첫째,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는 자신만의 이미지와 색을 창조하며 ‘나만의 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둘째,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는 재료의 감각적 경험, 색채의 상징성, 작업 과정의 몰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해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셋째,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는 작품을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삶의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특히 8회기 이후에는 “예술을 통해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와 같은 진술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예술적 창작이 단순한 감정 배출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삶의 태도를 재구성하는 로고테라피적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로고테라피가 예술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체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예술치유가 개인의 심리적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공공 문화공간에서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와 회복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미치료’를 ‘예술적 실천’으로 확장한 사례로서, 향후 지역사회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로고테라피의 가치가 프로그램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과정을 정리하고, 이후 결과 및 논의 장에서 참여자의 의미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 로고테라피 가치 반영 방식

각 가치는 회기별 활동 목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참여자가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도록 유도하였다.

첫째,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는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는 ‘창조 행위’를 통해 존재의 목적을 자각하는 과정으로, 참가자들은 점토, 채색, 조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구체적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작품 제작 과정은 내면의 혼란을 외부화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실존적 행위로 기능하였다.

둘째,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는 예술적 몰입과 감각적 체험을 통해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순간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공감을 회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자들은 재료의 감촉, 색의 온도, 형태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언어 이전의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였고, 공동의 작업과 나눔을 통해 상호 간 유대와 소속

감을 회복하였다.

셋째,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는 삶의 고통이나 한계 상황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예술치유 장면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나 상처를 작품 속 이미지로 직면하며, 그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태도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는 프랭클이 말한 “비극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유”의 실천으로, 참여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예술 활동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미의 재구성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예술적 창작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실존적 행위로서,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이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근간으로 하여, 개인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실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설계·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에서 관계 확장, 그리고 의미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가치(창조적·체험적·태도적 가치)가 예술 활동 속에서 단계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는 참여자가 자신만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나만의 표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점토·채색·조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은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외부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로고테라피의 핵심인 의미의 창조적 실현이 예술활동을 통해 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체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는 감각적 체험과 예술적 몰입을 통해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색의 명도·채도와 재료의 질감, 형태의 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감각적 회복을 경험하였으며, 동료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과 유대가 강화되었다. 이는 프랭클이 말한 예술·자연·인간관계 체험을 통한 의미 발견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는 고통이나 상처를 재해석하며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예술적 표현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와 사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삶의 어려움도 의미가 있다”는 통찰을 보였다. 이는 로고테라피가 강조하는 ‘비극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유’

가 예술적 체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심리적 해소를 넘어, 의미의 재구성 및 실존적 성장의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창조적 행위 속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자각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 연결을 회복하며,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로고테라피의 실존철학이 예술을 매개로 구체적 체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예술치유가 개인의 내면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문화공간에서 공동체적 치유의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공공문화공간에서 진행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라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참여자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다양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둘째, 사전 안내·구두 동의·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 윤리 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사진 제공 범위나 민감 정보 비식별화와 같은 세부 윤리 절차가 연구 내에서 충분히 기술되지 못하였다. 셋째, 공공문화공간이라는 환경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친 영향을 질적 자료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나, 공간 변인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 역시 제한점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특성의 다양화, 윤리적 절차의 문서화, 그리고 혼합방법적 접근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로고테라피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더욱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프랭클(Viktor E.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가치(창조적·체험적·태도적 가치)가 예술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의 확장, 관계적 유대의 강화, 의미 재구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예술치유가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고테라피의 핵심 가치인 창조적·체험적·태도적 가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설계와 회기 구성

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예술 활동 전반에서 실존적 의미 탐색을 촉진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자기 이해의 확장과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로고테라피에 기반한 예술치유의 실천은 개인의 실존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관계적 치유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충실히 검증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로고테라피가 예술치유의 이론적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예술이 인간의 실존적 탐색과 자기초월을 구체적 체험으로 이끄는 매개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미 중심 치료의 관점에서 예술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치유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실존철학적 인간 이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공공문화공간에서 개인의 내면적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술이 개인의 의미 탐색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존적 회복을 촉진하는 통합적 치유의 장(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의미척도·삶의 만족도·회복탄력성 척도 등을 병행하여 로고테라피 기반 예술치유의 효과를 정량적·비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프로그램을 기관형·복지형 모델로 발전시켜 학교·복지관·공공기관 등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고테라피 예술치유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예술이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회복시키는 로고테라피적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을 통한 의미 회복은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확장시키는 치유의 언어로 작용하며, 이는 로고테라피가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자기초월의 가치가 예술치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 참 고 문 헌

- 구승미(2024). 그림책을 활용한 로고테라피 기반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지화(2019). 의미치료 기반 노인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동화진(2022). 독거노인을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삶의 의미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상미(2025). 로고테라피를 통한 영적 상담에 대한 실증연구: 상담자 내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6(2), 727-753
- 송태윤, 김갑숙(2024). 전문직 종사자의 실존주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미술치료연구**, 31(6), 1263-1289.
- 이종인(2019). 빅토르 프랑클의로고테라피에 대한 철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임선애, 김윤태(2021).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꽃 피는 마을 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6(6), 57-76
- 조지연(2023).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로고테라피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진숙희(2022). 노년기 우울 해소를 위한 영혼돌봄 연구- 로고테라피와 영적상담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채성만(202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Abstract]

Design and Practical Reflection  
on an Art Healing Program Grounded in Logotherapy  
- A Case Study of a Community Based Public Cultural Space

Kang, Mina\*

This study explores the design and practical reflection of an art healing program grounded in Viktor E. Frankl's philosophy of logotherapy. The program was developed to enable participants to rediscover the meaning of life and experience existential growth through artistic expression. It was structured around the three core values of logotherapy—creative, experiential, and attitudinal—and implemented over twelve sessions in a community-based public cultural space. The participants expanded their self-understanding through creative expression and experienced emotional recovery and meaning reconstruction through sensory immersion and relational interaction. These experiences illustrate that Frankl's philosophical principles can be concretely embodied within artistic practice. Furthermore,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art healing can function not only as a means of individual inner recovery but also as a medium for restoring communal emotional connectedness. The findings confirm that the existential values of logotherapy can be realized through art, offering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aning-centered art healing programs in community contexts.

**Key words:** Logotherapy, Art Healing, Existential Growth, Creative Value, Experiential Value, Attitudinal Value

---

\* Daegu Cyber University, Student, First Author. minart1004@naver.com